

■ 남문기 칼럼 | 뉴스타 부동산 그룹 회장
www.newstarrealty.com

한국인이 살면 그곳이 한국 땅!!

잘 아는대로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 대륙에 붙어 있다. 지금의 중국은 매우 빠르게 성장 중에 있어 앞으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협상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고, 이미 어떤 분야는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어 미국의 주도권이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이 현재보다 더 나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타이완과 실제적인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한국에 어떻게 대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며 이번에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단호한 대처방법을 보더라도 중국은 우리나라가 마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나라임이 밝혀졌다.

우리 나라처럼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15개국이 있다. 이들 나라 가운데 인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파키스탄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

인도를 제외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두 나라가 지금은 미국의 영향권에 있지만, 지역적 환경 때문에 언제 어떻게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큰 나라에 숙명처럼 붙어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옛날 조선 시대처럼 눈치 보며 조공 갖다 바치고 온갖 아부를 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해서라도 살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미국 건너와서 주인 없고 임자 없는 미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백번 낫지 않겠는가?

우리 속에 있는 DNA는 옛날 중국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고구려의 기상, 그리고 세계를 지배했던 칭기즈칸의 몽골 혈통이 흐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구려나 몽골처럼 전쟁해서 국토를 넓힐 수는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은 그 나라에 살면서 땅을 비롯한 부동산을 사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직



업의 전문성을 가져 타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분야를 발굴, 육성하여 그 직종에 진출해야 한다.

이스라엘을 보자. 중동의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인들이 미국 곳곳에 진출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한다. 우리 한인들이 미국으로 1,000만 명 이상 이주 하다 보면 얼마 후에는 미국에서 시의원, 시장, 연방하원의원, 연방상원의원, 주지사 등 행정부와 입법부에 주요 인물들이 배출될 것이다. 그리고 수십년 후에는 대통령도 탄생할 수 있다.

한인들이 미국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해 있다면 이미 강대국이 되어 있는 중국이나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함부로 하자는 못할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 민족에게 맞는 나라는 광활한 미국이다. 광활하다고 해서 꼭 땅이 넓어 광활하다는 말이 아니다. 미국은 모든 분야가 광활하다. 공부를 잘하면 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의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있고, 자영업의 업종도 지천으로 곳곳에 널려 있는 곳이 미국이다.

시야를 크게 가지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자. 할 수만 있다면 한국의 친척이나 형제 모두 미국으로 초청하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하든 영주권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미국 땅에 살도록 해주자. 그래서 이 땅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결국은 한국 땅이 되도록 지금부터 꿈을 가져 보자.